부처님이 부처님의 안부를 묻다



지안 스님의 〈법화경〉 강설

㊴ 법화 일승(一乘)

사바세계 기사굴산에 묘음보살이 백천만금이나 되는 영락을 가지고 석가모니 부처님 계신 곳에 이르러 머리 숙여 발에 예배하고 영락을 바치고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정화수왕지부처님께서 세존에게 안부를 전했습니다. '건강하시고 편안하십니까? 어려운 일 없으시며 즐겁게 지내십니까? 사대가 조화롭고 편안하십니까? 세상일은 견디실 만하십니까? 중생제도는 잘 되고 있습니까? 탐욕이 많고 화를 잘 내며, 어리석고 교만하며 질투심이 많은 중생들은 없습니까? 부모에게 불효하며, 사문에게 불경스러우며, 그릇된 소견과 악한 마음을 가진 자는 없습니까? 다섯 가지 정욕(五情)을 잘 절제하여 거두지 못한 이는 없습니까? 세존이시여, 중생들이 능히 마군과 원수를 잘 항복 받습니까? 오래전에 열반하신 다보여래께서 칠보탑 안에 계시면서 오시어 법을 들으십니까?' 또 다보여래께 문안하셨습니다. '편안하시고 불편함은 없으십니까? 잘 참고 오래 견디어 오래 머무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전하셨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 다보여래의 몸을 뵙고자 하오니, 원컨대 세존이시여, 저로 하여금 친견하게 하여주십시오."

그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다보여래께 말씀하셨다.

"이 묘음보살이 친견하고자 합니다."

이때 다보여래가 묘음보살에게 이르셨다.

"훌륭하고도 훌륭하도다. 그대가 능히 석가모니여래께 공양하고 〈법화경〉을 듣고 또 문수사리 등을 보기 위하여 여기까지 왔구나."

'묘음보살품'에 나오는 이 장면은 정광장엄국에서 정화수왕지부처님을 뵌 묘음보살이 신통력으로 선물 영락을 가지고 사바세계 영축산에 와 석가모니 부처님과 다보여래에게 정화수왕지부처님의 안부 인사를 전하는 장면이다. 〈법화경〉 특유의 부처님이 부처님에게 안부를 전하는 장면이다. 〈법화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이름도 비슷한 〈비화경(悲華經)〉이 있다. 자비를 꽃에 비유하여 이름을 삼은 경이다. 이 경에는 예토성불(穢土成佛)을 강조하는 특징이 있다. 부처님이 정토에 계시지 않고 예토에 오시는 것은 대비심으로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전생의 서원인 본원(本願)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비록 수많은 부처님 세계가 있고 그 세계에 보살이 있지만 불·보살이 활동하는 주 무대가 사바세계 예토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불의 참가치가 예토에 있다는 것이다. 정토신앙에서는 중생이 부처님을 의지하여 부처님이 계신 나라에 태어나기를 발원한다. 극락왕생을 발원한다든가 미륵정토인 도솔천에 태어나기를 바라는 내세 위주의 신앙에서 발원하는 정토를 타방정토(他方淨土)라 한다. 그런가 하면 여기가 불국토라 하여 부처님 국토를 다른 곳에 가서 찾는 것이 아니라는 차방정토(此方淨土)가 있다. 예토성불은 중생이 살고 있는 현실세계를 불국토화하는 것이므로 차방정토가 된다. 물론 차방, 타방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다는 유심정토설(唯心淨土說)도 있다. 이는 선종(禪宗)에서 주로 말해 온 설이다. 〈법화경〉에서는 이 세 정토에 관한 설이 다 수용되어 있지만, 사바세계가 가장 성불하기 좋은 곳이라 하므로 차방정토를 우선으로 말하고 있는 경이다. 이미 '방편품'에서 밝힌 대로 부처님이 일대사(一大事)를 할 수 있는 곳이 중생이 있는 사바세계라는 것이다. 신라 때 원효는 그가 지은 〈법화경종요〉에서 〈법화경〉 대의를 서술하면서 〈법화경〉의 성격을 이렇게 규정했다. "〈법화경〉은 시방삼세의 모든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나타나신 큰 뜻과 일체중생이 나아가는 하나의 길을 밝힌 진리의 문이다. 깊고도 드높은 이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큰일 하나(一大事)로 중생에게 깨달음을 열어 보여서 깨달아 들어가도록 하고(開示悟入), 모든 부처님의 몸이 다 똑같은 부처님이라는 이치와 세간과 열반이 결코 대립하거나 따로 떨어져 있는 세계가 아니라는 이치를 밝혔다."

이는 정토와 예토가 다르지 않으며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라는 말로 법화일승(一乘)의 본뜻을 밝힌 말이다.

〈반야불교연구원장〉

좋은 의도 행위가 좋은 결과 가져와



임상희의 계율이야기

㊴ 공리주의와 불교윤리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하는데, 뜻하지 않게 도덕적 딜레마에 처하게 된다면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대부분 자신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선택을 하겠지만, 일부는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이에게도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선택이 무엇인지 고민할 것이다. 흔히 전자의 입장을 이기주의(利己主義)라고 하며, 후자의 입장을 공리주의(功利主義)라고 한다. 대부분 평상시에는 이기주의를 강도 높게 비판하지만, 막상 자신의 상황이 되면 이기적으로 돌변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머릿속으로는 많은 이들의 행복을 추구해야 한다고 여기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행복만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누구나 자기 자신의 쾌락을 최대한 추구하려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인다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이, 나아가 사회 전체의 쾌락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보편적 쾌락주의로서의 공리주의는 한 개인의 쾌락보다 사회 전체의 공중적(公衆的) 쾌락을 목적으로 삼는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공리주의는 이기적인 개인들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각 개인 간의 이익이 충돌하든, 개인의 이익과 공공(公共)의 이익이 충돌하든,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기보다는 서로 간의 이익을 절충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공리주의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윤리이론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근대 영국의 철학자인 제레미 벤담(Jeremy Bentham)에 의해 주창된 공리주의는 목적론적 윤리체계로 목적을 기준으로 규범의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 즉 어떤 행동을 평가할 때 그 행동이 결과적으로 얼마나 많은 행복을 산출해 냈는지에 주목한다. 따라서 공리주의에서는 도덕적 딜레마에 처했을 경우 '모든 사람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가져올 수 있도록 행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옳고 그름의 최종적 판단 근거는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선(善)인 '행복'이다. 따라서 어떤 행동에 대한 도덕적 평가도 그 행동이 얼마나 많은 행복을 가져오는가에 따라 내려진다. 다시 말해 공리주의는 결과주의와 행복주의를 내세우는 결과론적 윤리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공리주의와 불교윤리는 어느 지점에서 맞닿을 수 있을까? 영국의 불교학자인 데미언 키온(Damien Keown)은 그 지점을 '행위의 선택에 있어서 결과에 대한 고려'로 파악한다. 수많은 경전에서는 불교도들에게 그들의 도덕적 선택의 결과에 대해 심사숙고할 것을 권유한다는 것이다. 즉 불교에서의 업(業)은 선한 행위와 미래의 행복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다. 공리주의에서 옳은 행위는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주장하듯이, 불교에서 선업(善業)은 좋은 과보를 받을 수 있는 행위로 설해진다는 것이다. 이런 경향은 대승불교에서 두드러지는데, 어떤 행동을 선택할 경우 더 많은 사람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대승의 선교방편론(善巧方便論)도 계율을 지키는 것보다 성공적인 결과를 우선시하는 것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그러나 행위의 결과를 중시하는 공리주의와 달리 불교에서는 행위의 동기인 의도(cetanā)를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긴다. 공리주의에서 옳은 행위는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행위이지만, 불교에서는 좋은 행위이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한다. 다시 말해 단순히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해서 좋은 행위가 아니라 좋은 의도에서 비롯된 행위가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여기는 것이다. 따라서 불교윤리에서는 좋은 의도를 가진 행위가 반복된다면 반드시 유익한 결과를 맺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동국대 불교대학 강사〉



대풍 스님의 진심법문

⑮ 끝없이 이어지는 업보

고의로 지은 업과 모르고 지은 업 달라

8. 10가지 악업의 과보

십악업(十惡業)을 지으면 어떠한 과보(果報)를 받게 될까요?

부처님께서는 〈잡아함경〉 권 제37(1048) '원주경(圓珠經)'에서 이르기를 "살생하기를 많이 익히고 많이 행하면 지옥에 태어날 것이요, 혹 인간 세계에 태어나더라도 틀림없이 수명이 짧을 것이다. 도둑질[偸盜]을 많이 행하면 지옥에 태어날 것이요, 혹 인간 세계에 태어나더라도 재물에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삿된 음행[邪淫]을 많이 익히고 많이 행하면 지옥에 태어날 것이요, 혹 인간 세계에 태어나더라도 자기 아내가 남의 꾐에 빠지게 될 것이다. 거짓말[妄語]을 많이 익히고 많이 행하면 지옥에 태어날 것이요, 혹 인간 세계에 태어나더라도 남의 놀림을 많이 받을 것이다. 이간질하는 말[兩舌]을 많이 익히고 많이 행하면 지옥에 태어날 것이요, 혹 인간 세계에 태어나더라도 친구들이 배반하고 떠날 것이다. 욕설[惡口]을 많이 익히고 많이 행하면 지옥에 태어날 것이요, 혹 인간 세계에 태어나더라도 언제나 추한 음성을 갖게 될 것이다. 꾸밈말[綺語]을 많이 익히고 많이 행하면 지옥에 태어날 것이요, 혹 인간 세계에 태어나더라도 말에 신용이 없을 것이다. 탐욕[貪]을 많이 익히고 많이 행하면 지옥에 태어날 것이요, 혹 인간 세계에 태어나더라도 탐욕만 더 늘어날 것이다. 성내는 일[瞋]을 많이 익히고 많이 행하면 지옥에 태어날 것이요, 혹 인간 세계에 태어나더라도 성내는 일만 더욱 더 늘어날 것이다. 삿된 견해[邪見]를 많이 익히고 많이 행하면 지옥에 태어날 것이요, 혹 인간 세계에 태어나더라도 어리석음만 더욱 더 늘어날 것이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십악을 지어 받는 과보가 너무나 두렵고 무섭기 때문에 우리들은 십악업을 결코 짓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십악업 과보 두렵고 무섭기 때문에
대중 모두 십악업 결코 짓지 말아야
고의로 짓는 업은 반드시 갚음 받고
모르고 짓는 업은 그 갚음 받지 않아
업의 과보 3종 여러 생에 걸쳐 익어

불자 여러분! 업을 짓는 데도 고의로 짓는 업과 모르고 짓는 업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업보도 다르게 나타납니다.

부처님께서는 〈중아함경〉 권제3 '업상응품(業相應品)' 사경(思經)에서 이르시길, "만일 고의로 짓는 업이 있으면, 나는 반드시 그 갚음[報]을 받되 현세에 받거나 후세에 받는다고 말한다. 만일 고의로 지은 업이 아니면, 나는 반드시 그 갚음을 받는다고 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모르고 짓는 업은 반드시 그 갚음을 받지 않습니다. 의도가 없이 모르게 짓는 업은 과보 받음이 없습니다.

지은 업이 나타나는 시기도 다 다릅니다. 지은 업이 성숙되는 기간은 다양합니다.

〈다기니까야(Dīgha Nikāya)〉에서 부처님께서는 업이 과보를 나타내는 시기를 크게 나누어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업의 과보에는 3종이 있다. 업은 이생에서 익고(順世業), 다음 생에서 익고(順生業), 여러 생에 걸쳐서 익는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업을 현생에 지어서 현생에 그 과보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현생에 지은 업의 과보는 여러 생에 걸쳐서 받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업을 짓게 되면 그 과보를 피할 수는 없지만 인간의 참회와 노력에 따라서 그 과보를 조금 적거나 다르게 나타나게 할 수는 있습니다.

〈밀양 사천왕사 주지〉

겨울철
난방(煖房)
걱정 끝!
바닥철거 없이 시공가능 난방비 50% 절감
21세기 신 난방 문화의 대변혁 : 법당, 요사채, 선방, 공양간 등
◈ 시공실적 ◈
해인사 백련암, 미황사(해남), 대흥사(단양), 용담사(안동), 연꽃마을(용인요양원),
전국 캠핑장 캠핑트레일러(경인 아라뱃길, 가평 자라섬), 대부도 캠핑장, 성동힐링센터(동강)등
이동식 주택형 찜질방 제작판매 (2인, 4인, 6인용) "정직한 시공으로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정원난방산업 문의 010-3267-1263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얼과혼이담긴 우리민족의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 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민속죽염 ◈
가루자죽염 125g 40,000원
가루자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자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자죽염 230g 78,5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 2번 구운 민속죽염 ◈
◆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